



정읍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렬에 동참했다. 정읍시는 7일 이학수 시장이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지역 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홍식 회장과 대한적십자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 김경숙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홍식 회장은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적 참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참프레, 부안 근농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주)참프레(대표 김재윤)가 지난해 12월 3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으로 참프레가 재단에 기부한 장학금 누적액은 총 1억5,000만원에 이른다.

참프레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기업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꾸준한 장학금 기탁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특히 단발성 후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며 지역 인재 양성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윤 대표는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으로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응원하는 일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프레는 장학금 기탁을 비롯해 지역 농가와의 협력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 기반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꾸준히 힘쓰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진안 용담 주민자치회, '마을복지' 성금 기부

진안군 용담면 주민자치위원회 이경철 위원장은 지난 6일 용담면 마을복지에 성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기탁은 용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모금한 성금 98만5,000원으로 진행했다.

용담면은 이번 성금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돼 마을복지 사업을 거점으로 용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의 특화사업과 나눔 활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을복지 사업은 용담면 지사협의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정기 및 일시 후원자 30여명이 함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저소득층 가정 말뚝치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노기환 용담면장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큰 귀감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기부금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사계절 축제 성공 '주역'

강영구 임실군 관광치즈과장, 대통령 표창

임실군의 천만관광을 견인하는 사계절 축제의 성공 주역으로 불리는 강영구 관광치즈과장이 이재명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7일 강영구 과장이 33년간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정부 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지난 1992년 6월 공직에 입문한 이후 현재까지 33여 년간 다양한 지방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 의식으로 군정 발전에 헌신해 왔다.

특히 그는 심 민 군수가 일관되게 추진한 관광정책에 큰 힘을 보태며, 창의적이고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 공모사업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

지난 2025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민간상생 투자협약 사업을 총괄해 총 13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유치했으며, 체류형 복합문화공간과 체험·휴양·놀이·숙박이 결합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하는 등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 총괄 및 실행 단계 관리 역할을 맡아 지역 특화 관광지 개발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 계절별 축제를 총괄 기획·운영해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어나는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



실제 임실N치즈축제는 2024년 대한민국 최우수 3대 축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으며, 임실N웹스타 아쿠아 페스티벌, 산타축제 등 주요 계절 축제 운영을 통해 축제 개최 역대 역대 최다 관광객을 기록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임실군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축제달인', '축제요정' 등의 별칭까지 얻는 등 사계절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에 두드러진 역할을 해냈다는 평이다.

강 과장은 관광 분야뿐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임실N치즈 산업 육성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임실N치즈 브랜드를 1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이끌며 국내 최고 치즈 브랜드로 자리매김시켰고, 임실치즈&식품연구소를 중심으로 베이글칩, 증류주·도화탕 등 신제품 개발과 판촉 활동을 강화해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썼다.

이와 함께 임실N치즈 낙농산업지구 선도지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낙농특구 3차 지정을 통해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무상 지원으로 지역 복지 증진과 산업·교육 상생 모델 구축에도 기여했다.

강영구 관광치즈과장은 "33년간 공직자로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이번 수상은 개인이 아닌 동료 공직자들과 군민 여러분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임실 관광과 치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농협,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에 감사패

전북농협이 지역 농산물 가공과 협업을 통해 농업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북농협은 7일 오후,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에 경제사업 활성화 유공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전북 지역농협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북 농산물 가공 확대에 앞장서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농심전심(農心天心)의 가치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해 마련됐다.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지역농협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 농산물 소비 촉진에 꾸준히 힘써왔다. 특히 전복 쌀을 활용한 전복주 생산 과정에서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향상과 판로 확대에 기여하며 지역 농업과 가공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왔다.

이 같은 노력은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열린 '2025 우리 쌀·우리술 K-라이프스타'에서 한영석의 발효연구소가 출품한 '도한 청명주'가 약·청주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전복 쌀의 우수성과 지역 농산물 가공 기술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한 전북농협 역시 이번 K-라이프스타에서 지역본부 경진대회 2위를 차지하며, 전북농협과 지역농협, 쌀 가공업체가 함께 만들어온 협력의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오상근 기자

"오직 창의·열정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총력"

전북서남상의, 병오년 신년인사회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종필)는 1월 7일(수) 전북서남상공회의소 3층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박 일 정읍시의회의장 김정태 전북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등 주요 인사를 비롯한 지역상공인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등 150 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최종필 회장은 "올 한 해 회원사 여러분이 거친 풍랑을 뚫고 전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해, 기업인들이 오직 창의와 열정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요 내빈들의 새해 덕담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선 (주)대희정밀 권기찬 대표이사, (주)이노비텍 최나현 대표이사, (유)다원에프에스 채수현 대표이사, (유)대성



이엔지 조준중 사장 등 상공인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장 수여도 함께 있었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올해도 △AI 정보 공유의 장 마련 △기업 규제 개선 건의 △회원기업 경영지원 강화 △지차체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번 장학생은 영원한 장학생"

추영곤 장수교육장, 개인 사비 출연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장학금 지원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했다.

장학금은 추영곤 교육장이 개인 사비를 출연해 5개교에서 총 47명의 학생을 선정해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해당 사업은 한번 장학생은 영원한 장학생 장수 어린이 모두가 장학생이라는 취지로, 특정 소수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어린이를 지역의 소중한 인재로 응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추천 기준은 졸업사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해, 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학금은 성실한 학교생활과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장수군 모든 학생들에게 전달됐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한 학생은 "장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더 믿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진안을 주민자치회, 2026년 새해 첫 기부금 전달

진안군 진안을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우석)는 새해를 맞아 진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가 운영하는 '소금창고'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시작을 알렸다.

소금창고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희망찬문을 열어주려 언제든지 달려가는(go) 사업'을 뜻하며, 진안을 지사협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원 마련의 모금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사업을 기획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 공부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받은 응원을 잊지 않고 친구들을 배려하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추영곤 교육장은 "장수의 모든 어린이는 이미 소중한 장학생"이라며 "이번 장학금이 미래 세대에 대한 작은 응원이 되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나누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바란다"고 말하며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번 사례와 같이 지역 사회와 함께가는 교육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수=고광호 기자



남원 사매면, 남원72회 기부물품 전달식

남원시 사매면 행정복지센터는 7일, 남원72회(회장 한성철)의 기부물품(원가액 220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1972년생 남원시민으로 구성된 봉사모임인 남원72회(회장 한성철)의 회원들과 김식목 사매면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날 기부된 물품은 백미 10kg 40포, 화장지 20묶음, 라면 20박스로 사매면 내 20개 마을 경로당에 전달되어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성철 회장은 "같은 해에 태어난 시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경로당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천면, '도란도란 염색방' 등 진행

남원시 주천면은 지난 6일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남·여 의용소방대원, 맞춤형복지팀이 협력하는 '도란도란 염색방'과 '우리동네 효자순'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매우 호응이 높아, 작년 한해 '도란도란 염색방' 사업을 통해 21개 마을 120명, 우리동네 효자순 사업을 통해 16개 마을 26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명의 기부자, 남원시에 희망2026 성금 기부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6일 희망2026 나눔캠페인 기간 중 익명의 기부자가 5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남원시가 고창한 다른 지역 거주자가 전달한 것으로, 기부자는 개인 신상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익명 기부를 요청, 해당 기부자는 고창한 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기부는 일회성 나눔이 아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진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